

‘연기신들’ 극장가 총출동

‘프리즌’ 정통 악당 **한석규**

‘보통사람’ 경찰 인생 **손현주**

‘특별시민’ 정치 9단 **최민식**

‘택시운전사’ 택시기사 **송강호**

한석규, 손현주, 최민식, 송강호. 연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연기신(神)’들이 극장가를 차례로 찾는다. 그동안 선보이지 않을 색다른 배역으로 연기변신을 할 예정이어서 관객들의 기대가 크다.

먼저 한석규가 이달 23일 영화 ‘프리즌’을 통해 데뷔 후 첫 정통 악역에 도전한다. ‘프리즌’은 반만 되면 감옥 밖으로 나와 범주를 저지른 뒤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죄수들의 이야기를 그린 범죄 액션. 한석규는 감옥에서 재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범주를 진두지휘하는 죄수 악역 역을 맡았다.

최근 SBS 드라마 ‘남만닥터 김사부’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준 그는 ‘프리즌’에서 눈빛만으로도 상대를 제압하는 악역으로 변신하기 위해 목소리 톤과 말투, 걸음걸이까지 바꾸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손현주는 같은 날 개봉하는 ‘보통사람’으로 한석규와 스크린에서 맞붙는다. ‘보통사람’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강력계 형사가 나라가 주목하는 연쇄살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손현주는 열심히 범인을 잡아 국가에 충성하는 1980년대의 ‘보통 형사’이자 가족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평범한 가장 성진 역을 맡아 그의 장기간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연기를 펼친다.

4월 개봉을 앞둔 ‘특별시민’은 최민식의 귀환으로 주목받는 작품이다. 서울시장 변종수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다룬 ‘특별시민’에서 최민식은 30년 연기 인생 최초로 정치인 연기를 선보인다. 최민식은 속을 알 수 없는 ‘정치 9단’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송강호는 올여름 ‘택시운전사’로 관객들을 만난다.



최민식

한석규

손현주

송강호

‘택시운전사’는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1980년 5월, 서울의 택시운전사 만석이 통금 전에 광주를 다녀오면 큰 돈을 준다는 말에 독일기사 피터를 태우고 아무것도 모른 채 광주로 향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송강호는 택시운전사 만석역을 맡아 ‘변호인’(2013)에 이어 또다시 사회성을 지닌 영화에 출연한다.

이 가운데 한석규와 최민식, 송강호는 1999년 개봉한 최초의 한국형 블록버스터 ‘쉬리’의 주역들이다. 남북한 정보원들의 맞대결을 그린 ‘쉬리’에서 한석규와 송강호는 남북 정보기관 요원, 최민식은 북측 요원으로 출연해 영화 흥행을 이끌었다.

이들 세 사람이 올해 출연한 세 작품 모두 소박스가 배급하는 영화인 점도 공통점이다. /연협뉴스



15주년

- 인기 코너 -
쟁반노래방
프렌즈
사우나토크



“추억의 인기 코너 놓치지 마세요”

‘해피투게더’ 3부작 특집 방영

PD “유재석호 향해 계속 될 것”

매주 목요일 밤의 편안한 웃음을 책임져온 KBS 2TV의 ‘해피투게더’가 어느새 15살이 됐다. 제작진은 15주년 특집 카드로 가장 사랑받은 코너 3가지를 다시 불러냈다. ‘쟁반노래방’, ‘프렌즈’, ‘사우나 토크’다.

박민정 PD는 8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피투게더’는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 같다”며 “계속 변화를 시도하겠지만, 목요일 밤 많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웃음을 주자는 기본 브랜드를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 MC 신동엽 이후 10년 이상 든든한 기능이 돼 준 유재석에 대해서도 애정과 신뢰를 드러냈다.

박 PD는 “15년을 달려온 것도 유재석이라는 변치 않는 MC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포맷을 시도하더라도 제작진이 늘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계속 유재석호로 향해를 할 것이라는 질문엔 “작년에도 베스트 팀워크 상을 받았다. 유재석씨 마음이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 “유재석 옆에 좌정용 우백호처럼 박명수와 전현무가 있다”며 “박명수는 착하기만 한 토크에서 변

주를 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고, 전현무는 트렌디한 PD의 마인드를 가진 분이다. 조세호와 엄현경도 기대 이상으로 활약해준다”고 말했다.

15주년 기획으로 과거 포맷을 불러온 데 대신 “과거의 인기 포맷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가 많아 3부작으로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쟁반노래방’은 걸그룹 특집이다. ‘쟁반노래방’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방송된 코너로, 밀폐된 노래방 스튜디오 안에서 MC와 게스트들이 동요를 한 소절씩 나눠 부르고, 틀릴 경우 전원이 쟁반을 맞는 게임 방식이다. 중영한 TV 프로그램 중 가장 그리운 프로그램 1위에 꼽히기도 했다.

박 PD는 “전소미양 같은 경우 ‘쟁반노래방’이 방송되던 시기에 태어났는데도 인터넷으로 재밌게 봤다고 했다”며 “하나씨는 자신이 속한 그룹 EXID 멤버들 외에 친구가 없었는데 녹화 후 걸스데이 유라씨와 정말 친해져서 뿌듯했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프렌즈’는 전현무와 조세호가 친구를 찾아 나선다. ‘국민요정’에서 아이 엄마가 된 유진도 15주년 축하 케이크를 들고 스튜디오에 나타났다고 한다. 유진은 특별 출연해 유재석과 호흡을 맞추고, 렌리가 전현무 팀의 반장으로 분해 ‘프렌즈 리턴즈’ 특집을 지원 사격한다고 알려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 PD는 “SNS로도 서로 연락하지 않는 친구를 찾

아서 섭외하기가 어려웠다”고 고충을 털어놓으며 “전현무씨는 녹화 전에 바로 다 맞힐 수 있다고 하더니 ‘프렌즈’ 역사상 가장 해매더라”고 전했다.

‘사우나 토크’의 출연진도 이날 처음 공개됐다. ‘예능 선수’들이 개그맨 이수근과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진정성 있는 토크를 보여줄 배우 손현주와 김상호, 최근 ‘핫’한 가수 존박과 헬로비너스의 나라가 나선다.

가장 최근에 중영한 ‘사우나토크’는 출연진들 모두가 사우나복을 입고 둘러앉아 토크와 게임을 펼쳤던 코너로, 왓지떨어하고 사람 냄새 나는 특유의 분위기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한편, ‘대선주자 특집’ 기획도 좌초된 게 아니라 유호한 카드라고 한다.

박 PD는 “정말 공들여 준비했던 기획인데 15주년 특집에 녹이기에 시점상 문제가 있어 그러지 못했다”면서도 “어쨌든 좋은 기획이라 생각하고 MC들도 기대했었기에 언젠가는 꼭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주년 특집 3부작으로 ‘붙임’을 한 뒤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겠다. 트렌디하면서 익숙한 웃음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집 3부작 중 ‘프렌즈 리턴즈’는 9일, ‘사우나토크 리턴즈’는 16일, ‘쟁반노래방 리턴즈’는 23일 방송된다. /연협뉴스

TV 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발)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토크 30 아침연속극 (아이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사람과 사람들 (재) 50 팔도탐성 스페셜	00 인간극장 스페셜	00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5 인간극장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재)	00 SBS 12 뉴스 30 KBC 12 뉴스 50 TV블로그 토크 55 특선다큐 (그래도 행복하고 학교 가는길)
1	00 시청자질문 우리 사는 세상 05 네티즌 토크 문화산책 55 KBS 스페셜 공산정립기획 2부작 뉴메이드인 코리아 (재)		20 앙코르 MBC 다큐프라임	55 닥터 365
2	50 이웃집 찰스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15 텔레몬스터 (재)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2시, 뉴스브리핑
3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자동차부채상 위기 2 30 TV유지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55 내일은 언제나 푸름	20 TV블로그 토크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티타임 W 2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질문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법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토크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 24 55 버터민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공산정립특집 8부작 UHD 유네스코 세계유산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00 수목드라마 (미생나인)	00 드라마 스페셜 (사임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공산정립특집 신라왕정복원프로젝트 황금기사의 성	10 15주년 기획 해피 투게더	10 세가지색 판타지-반지의 여왕	10 자기가 - 백년손님
12	35 네티즌 토크 문화특선 올댓유지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MBC 뉴스 24 4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숨은 평양 찾기)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머느리는 추가가 필요해)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사와 골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9:50 세상을 내면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매혹의 보물섬 인도네시아 - 원시 부족의 땅 수미트라)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뽀뽀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웬스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똑똑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엄마 까투리(재) 09:30 물랑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표고버섯 치즈불고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저 푸른 초드 위에)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크영화 - 길 위의 인생 (바람이 서다, 화산점판) 14:30 호기심나라 오기도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17:15 뽀뽀뽀 뽀로로(재) 17:30 로보카 폴리 17:45 똑똑맨(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 1~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21:30 한국기행 (내 맘대로 산다 - 서울특별시 산중일기) 21:50 세계문화기행 - 문화의 길을 걷다 (세익스피어는 어디 있는가?)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쪽같은 내 새끼랑 24:05 지식채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9일 (음 2월12일 乙未)

子	48년생 예상했던 것처럼 별 탈 없이 진행되리라. 60년생 기쁨 속에 활정이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72년생 새옹지마의 이치이니 차라리 더 나를 수도 있다. 84년생 도움이 되지 않으니 처음부터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20,77	午	42년생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백만 닢이다. 54년생 현상만 유지하라. 66년생 옛 일이 괴롭히나 큰일은 아니다. 78년생 가장 현실적이고 명료한 것을 선택하라. 90년생 우선순위를 역 할에 상위함이 없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7,50
丑	49년생 대화로써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구도이다. 61년생 경미하다면 대범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무방하다. 73년생 총횡무진 할 것이니 배짱이 많을 수밖에 없다. 85년생 수심이 깊으므로 건너야 할 배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21,14	未	43년생 폭풍전야와도 같다. 55년생 지켜보고 있노라면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67년생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을 세심히 살펴보자. 79년생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시점임을 알라. 91년생 대박이 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8,41
寅	50년생 언행을 무겁게 하되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이롭다. 62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순서대로 해야만 한다. 74년생 핵심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86년생 제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8,54	申	44년생 수익은 있으나 규모가 너무 작다. 56년생 뜻이 확실하다면 기탄없이 추진하는 것이 낫다. 68년생 예기치 않은 지출을 키우는 일이 터지겠다. 80년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59,84
卯	51년생 견인발발의 자세로 초지일관 한다면 반드시 이루게 된다. 63년생 한계선에 허덕임으로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 75년생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7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24,91	酉	45년생 실리보다 중요한 것은 조화로운 관계임을 알라. 57년생 절대로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69년생 단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느니라. 81년생 정확하게 가리지 않는다면 손해가 커지는 정황이다. 행운의 숫자 : 49,10
辰	52년생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64년생 순기능이 극대화되면서 여러 가지 발전한 양상을 띠게 된다. 76년생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88년생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44,90	戌	46년생 화합은 부를 일으키며 불화는 부를 파멸시킬 것이니라. 58년생 진취적인 기상으로 펼쳐나가야 할 절호의 기회에 이르렀다. 70년생 합목적성과 투명함이 성과를 배가하게 된다. 82년생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행운의 숫자 : 50,58
巳	53년생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것이 옳다. 65년생 여과제 상대적이지 않음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대응이 달라진다. 77년생 어림잡아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 89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허술하다.행운의 숫자 : 68,25	亥	47년생 지출이 발생하겠지만 정리를 위한 투자로 봐도 무방하다. 59년생 이익의 급격한 증가가 보이는 시기이다. 71년생 거친 풍량이 밀려오고 있으니 안전하게 대피하라. 83년생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면 자연히 따른다. 행운의 숫자 : 65,6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